

新 무소유 시대

일본 저성장 풍속도(7)

“건강을 마시자!” 원조맥주 아성 넘보는 無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맥주’를 시민들이 사용해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일반 맥주와 맛은 같으면서 알코올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무알코올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출처 산케이비즈니스

앞날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믿을 건 결국 내 몸뿐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류. 2009년 일본 내에서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무알코올’ 맥주가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그전에도 알코올 도수를 낮춘 맥주들이 선을 보였지만 문제는 맛. 톡 쏘면서 시원하고 뒷맛이 씹새로운 여운을 느끼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은 외면하는 게 당연했다. 입산부가 주요 소비층이었다. 그런데 2009년을 기점으로 대거 출시된 일본 맥주회사들의 무알코올 맥주는 이 한계를 극복했다. 산토리의 ‘올프리(all-free)’, 삿포로의 ‘프리미엄 알코올 프리’, 아사히의 ‘드라이제로’, 기린의 ‘프리

‘쉬는 날의 알코올 0.00%’ 등 이름도 다양한 제품들은 맥주의 목 넘김, 씹새로운 뒷맛과 부드러운 거품을 그대로 재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알코올 맥주는 2008년 6000만 개 정도 팔렸지만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거듭해 올해에는 8억 6160만 개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본 인구 1인당 연간 250mL 캔 7개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초 성인 5만 명을 연령별로 분석한 산토리 음료회사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40~60대 남성들은 “맛이 맥주랑 같은데 칼로리가 0에 가까워서” “당류(糖類)가 아예 없어서”를 선택 이유로 꼽았다. 20, 30대는 “술을 먹지 않았지만 마치 먹은

기분이 들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살을 빼면서 건강도 챙기는 다이어트로 2000년 초반부터 일본에서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단일 식품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었다. 2005년 한천(우뭇가사리 추출액으로 만든 해조가공품) 다이어트, 2007년 낫토(생청국장) 다이어트가 인기를 끈 데 이어 2008년에는 ‘바나나 다이어트’가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해 일본 재무성의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바나나 다이어트 열풍이 분 직후인 9월 바나나 수입률이 25%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토마토 붉이 일어 품귀 현상을 빚는 정도였다고 한다.

음료수 업계도 이미 건강음료시장이 점령하다 시피 했다. 건강검진 개념도 바뀌었다. ‘케어프’로만 기업은 단돈 5000원으로 간단한 건강검진을 시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만들어 승승장구 중이다. 혈당, 중성지방,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골밀도 중 1, 2개 단일 검사만 상품화시켜 매뉴 1개당 5000원을 받는 것이다. 비정규직 회사원이나 실업자, 주부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한다. 저성장 시대에 지킬 것은 내 몸밖에 없다는 일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신기하게도 우리의 너무 반박이이다. 정재훈 노무라종합연구소 컨설턴트 정리는=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SNS로 흥한 자, SNS로 망할지니

지금 SNS에서는

최근 축구선수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친한 사람들끼리만 볼 수 있는 페이스북 비밀 계정에 쓴 글이 논란이 되어 결국 축구협회에서 엄중 경고를 받았다. 기 선수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곤욕을 치르는 이들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축구팀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의 선수 조이 바튼은 4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경쟁 팀(파리 생제르맹)의 브라질 출신 수비수를 향해 “똥똥한 여자 남자”라고 트위터에 적었다가 프랑스 프로축구위원회에서 두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미국 야구선수 이언 스투어트는 트위터에 자신을 메이저리그에 올려주지 않는다면 사카고 컵스 구단과 테일 스웨임 감독을 비난했다가 구단에서 방출되기도 했다. 유명인들의 SNS 실화(舌禍)는 어제오늘 이야기 아니다. 휘발성이 큰 SNS 특성상 금방 문제가 됐다가 곧 사그라지지만 후유증이 큰 경우도 많다. 걸그룹 ‘티아라’가 대표적. 지난해 7월 멤버들이 한 멤버를 겨냥해 ‘의지가 없다’며 힐난하는 트윗을 올리면서 왕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드라마에 출연한 멤버들이 팬들의 항의로 하차하고 음반 인기도 예전만 같지 못한 상황. 이번 달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 부도칸 콘서트도 흥행 전망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앞선 데 달친격으로 새롭게 영입한 멤버 ‘아름’이 10일 탈퇴 선언을 하자 “아름이까지 떠들었던 거 아니냐”

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요즘 SNS상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난도 조심해야 한다. 3일 소셜가 공지역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여자 연예인들의 경쟁적 노출, 성형 등을 보고 있으면 여자들의 구직난이 바로 떠오른다. 먹고살 길이 정말 없는 듯하다.ㅠㅠ”라는 글을 남기자 ‘클라라’의 표적이 됐다. 클라라는 다음 날 트위터를 통해 “공 씨의 글을 읽고 내 가슴이 뜨끔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게 있어 ‘관심’은 곧 직장인 월급과 같고, 무관심은 퇴직을 의미해요” “월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 하지만 월급이 삶의 목표가 아니듯, 제 목표도 관심이 아니에요. 훌륭한 연기자 되는 것이예요”라고 답했다. 오랜 무명시절을 겪었던 클라라는 5월 야구경기 시구 당시 몸에 붙는 줄무늬 레깅스를 입고 나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바 있다. 트위터는 일단 전승하는 순간, 더이상 혼자만의 일기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격과 반응을 필연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SNS로 곤욕을 치르는 유명인이 많다 보니 꼭 하고 싶다면 ①무조건 좋은 말만 한다(누군가를 비난하면 꼭 풍파가 일어난다). ②논란이 있는 주제(특히 정치 문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③사진을 올리기 전 속고에 속고를 거듭한다. ④비싼 물건이나 집은 공개하지 않는다(명중주의가 강한 국내 누리꾼 정서상 부러우아 비호감으로 전락한다). 요즘 연예계 ‘SNS 최고수’는 유재석과 이승기로 통한다. 왜냐고? SNS를 하지 않으니까.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청소년 축구대표팀에 박수를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통과하면서 8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고도 지금 축구국가대표팀은 전혀 팬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선수들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그동안 보여 온 경기력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다. 조기축구 수준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년 본선에서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앞섰다. 반면에 2013 터키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팀

은 비록 8강에서 탈락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골을 허용하고도 끝까지 만회하는 모습은 1960~70년대 수준의 ‘뺨축구’로 떨어진 국가대표팀에 실망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정교하게 이어지는 패스는 선배 대표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이번 팀은 국내에서조차 역대 최악 체라는 혹평을 받으며 출전했지만 투지와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런 예상을 마스터했다. 지금 안팎에서 못매를 맞고 있는 국가대표팀은 이런 후배들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심진만 경기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포토 에세이 힘이 납니다! 휴양지의 그 밤 상상만 해도...



지친 일상에 한 가득 희망을 주는 휴가. 어디로 떠날까? 무엇을 할까? 미국의 바닷가에서 미인과 함께하는 와인 한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생각만으로도 즐겁지 않나요? 톨디=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기고 | 불평등 건보료 부과체계 정비해야

2011년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6363만 건에 달한다. 총 민원건수 중 82%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서 현행 제도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현재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하나임에도 가입자들의 부담 기준은 이처럼 복잡하다. 이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불평등한 부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는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집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자식이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 편차는

더 커진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아들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자녀가 무직이면 퇴직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녀의 직장 유무에 따라 부모의 보험료 부담 유무가 결정되는, ‘건강보험판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지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 즉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인 총소득이 되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듯이, 건강보험료 부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개혁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2012년 1월 기준 전체 2116만 가구 중 소득 자

료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80%이고 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는 20%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건강보험법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확보할 경우 소득과약물은 95%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시뮬레이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개혁을 통해 전체 가구의 약 80%는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20%만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높은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그동안 소득이 있음에도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고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아진다. 건강보험 개혁은 점진적으로는 할 수 없다. 국민의 호응에 기반해 일거에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공진 한양대 경영대학 학장



경영지식과 INNOVATION을 만나는 또다른 방법

최고경영자를 위한 경영정보 지식충전소

CHIEF EXECUTIVE

Special Report 2013 休의 미학

달라지는 休의 세계 2013 '休의 미학 버킷 리스트 20'

연중기획 한국의 창업정신

Interview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위풍당당 변화의 새바람을 부르는 경영자 이원복 만화가 역사가 여행하는 '노마드적 호모나렌스'

경영자 산책 고전에서 배우는 경영전략 호메로스에서 배우는 긴항과 실득, 논쟁의 기술

Messenger 신경영 트렌드 변화 친화적 조직의 구축 실패에서 배우는 경영전략 대학 경영의 실패와 퇴출

Global Now, America 오리건주 GMO 밀 사건 Now, China 불꽃 튀는 무역전쟁 승자는?

전원 참여를 이끄는 혁신리더를 위한 종합 정보지

혁신리더

Special Theme 'Triple S' 경영의 품격 높인다

우리가 가진 인프라,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시스템 고도화로 스피드 높여라 워크스마트 위한 '마이너스' 혁신

연중기획 혁신의 심리학, 저항극복노트

Cover Story 유한킴벌리 한 발 앞서 더 나은 미래에 도전하다

Innovation Academy Technical Writing and Reporting for Engineer 저성과 그룹의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워크스마트, 스마트 피플

Inno People 이주성 삼성화재해상보험 소보기파트 책임 CS, 끊임없이 고객과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 Tel. 02-3786-0181, 0184 | E-mail. jisung@kmac.co.kr, njh@kmac.co.kr | Fax. 02-3786-0107 | www.kmac.co.kr | 150-86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KMAC